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시장 측근 낙하산 논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 노동이사 선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정산 늦거나 안된 보조금·위탁금 1조 9000억

이윤섭 광주시장의 지방선거를 도운 인사가 규정을 어기고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채용됐다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광주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보조금과 위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광주복지재단 A 사무처장의 채용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A 사무처장은 광산구청 국장을 역임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대표이사 외에는 모두 직원이고, 직원들은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정년 만 60세

를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 출신 이사를 선임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용집(민주·남구 1)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 산하 공사·공단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임명된 노동이사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2명,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은 각각 1명을 노동자 출신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관련 정관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노조에서 요청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시의 관리 감독도 미비해 답보 상태"라며 "노동이사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 노동자들의 의견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노사가 상생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년간 정산이 안 되거나 뒤늦게 정산이 된 광주시 보조금과 위탁금이 1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성(민주·서구 1) 의원의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시와 5개 자치구가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과 위탁금은 84건에 937억원에 이른다.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이내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과 위탁금은 1759건에 1조 8461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산이 돼야 하는 보조금과 위탁금은 7조2855억원(9095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은 63건에

843억원, 정산이 늦어진 보조금은 1093건에 1조5112억원에 이른다. 미정산 위탁금은 7건에 25억원, 지연 위탁금은 57건에 587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광주시가 재원발굴도 힘든데 정산해야 할 재원을 발굴해 놓고도 사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역(驛) 관리업무를 1조당 3~4인에서 1조당 2~3인으로 축소 조정해 시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무원들의 2인1조 시스템은 1인만 남게 됐을 때 긴급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역무원들이 휴게시간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청 앞 야외스케이트장 다음달 15일 개장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

올 겨울에도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이 운영된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청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 얼음썰매장, 매점, 휴게실 등을 갖춘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얼음썰매장은 600㎡(30×20m)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이며, 스케이트장 규모는 60×30m(1800㎡)다. 이용 요금은 예년처럼 입장료 스케이트, 썰매, 헬멧 대여

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이다.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다.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일선 학교를 찾아가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교실(매주 화·수요일 오후 1~2시), 주말과 공휴일 디제이 박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우울증 시달려

해마다 늘어...올 2배 ↑ 수면질환 호소 20%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전남 소방관이 올해 2배나 급증했다.

8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 소방관 2천53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PTSD 위험군에 속한 소방관이 121명으로 4.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PTSD 위험군 비율 2.8%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전남 소방관의 PTSD 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에서 2017년 2.8%로 줄었다.

수면 질환을 호소하는 소방관은 전체의 20%인 509명에 달했다.

이처럼 질환에 시달리는 도내 소방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심리 상담사는 6명에 불과해 도내 전체 14개 소방서 중 6곳만 상담사가 배치됐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교육 중인 6명의 심리 상담사를 일선 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으나 올해 4.8%로 급증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소방관도 올해 110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우울증도 2016년 3.2%에서 2017년 3.0%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수면 질환을 호소하는 소방관은 전체의 20%인 509명에 달했다.

이처럼 질환에 시달리는 도내 소방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심리 상담사는 6명에 불과해 도내 전체 14개 소방서 중 6곳만 상담사가 배치됐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교육 중인 6명의 심리 상담사를 일선 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트럼프 "선거 후 대북 협상...서두를 것 없다"

북미대화 재개 시기 촉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 후 대북(對北) 일선에서 '긴 호흡'의 협상을 천명하면서, 북미대화가 언제 재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 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 "재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언급했다. '서두를 것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중간선거라는 미국의 중요 정치일정이 종료되

고서 나온 것인데, 해당 회견에서 모두 7차례나 반복돼 눈길을 끈다. 우선 북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을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에서 참모들이 거론한 '내년 초 2차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

이 직접 확인한 것은 북미대화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북한을 붙들어 두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 협상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지속 등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선'을 그으며 대북 자택대로서 제재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는 북미 대화가 언제 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위급 회담이 당초 개최 예정일(8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이 잡히고 있는 여행들(trips that are being made) 때문"이라며

"(북미)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순전히(purely) 일정을 다시 잡는 문제"라며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관련 조례 철회해야"

임미란 광주시의원 촉구

전남도가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관련 조례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민주·남구3)은 8일 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도가 최근 광주시와의 최종 협의 없이 공동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단독 입법예고했다"면서 "이는 양사·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파기선언이며, 공동혁신도시로서 서로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의 큰 뜻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조성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발표 했다"면서 "시·도지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광주·전남이 미래 세천년도 함께 할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해 전남도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 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년만에 한인 출신 하원의원 탄생

미 서부시간 7일 오전 10시 현재 미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캘리포니아주(州) 39선거구에서 100%(추정치) 개표가 완료된 결과 한국계 영 김 후보가 7만6956표를 얻어

51.3%의 득표율을 기록, 당선이 확정적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영 김 후보(왼쪽)가 LA의 로렌 하이츠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는 모습.

영 김, 한인여성 최초 미국 하원의원 당선

한인 1.5세인 공화당 영 김(56·한국명 김영옥) 후보가 6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영 김 후보의 당선은 확정되면 1998년 김창준(제이 김) 전 연방하원의원 퇴임 이후 20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 서부시간 7일 오전 7시 현재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00%(추정치) 개표가 완료된 결과 영 김 후보가 7만6956표를 얻어 51.3%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48.7%, 7만3천77표 득표)에서 2.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영 김 후보는 득표율에서 3879표 앞섰다.

영 김 후보는 한인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에 진출하게 된다. 영 김 후보는 "당선되면 한미관계를 비

롯해 자유무역협정, 위안부 문제, 북미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민자 문제 등 한미간과 한인 사회의 협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인선 출신인 영 김 후보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13세 때 팔로로 건너가 중교를 다녔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을 다닌 뒤 미국에 정착했다. 대학졸업 후 초기에 금융기관에서 일하다 의류사업을 벌였으며 남편의 권유로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연합뉴스



건우 New Square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멀티액세션,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용산지구 리스빌 점포,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점포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중합건설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